

動的生活主義로 본道德問題

在米洲에서 韓稚振

一

오늘날 우리 朝鮮사람은 참말로 非常한 處地에 잇도다. 어데를 가보든지 남에게 支配만 맞아 살줄 알고 남을 支配하여 살줄을 모르는 우리 朝鮮사람이 되었다. 우리 內地에서나 外地에서나 모다 남의 賃직 賃해서만 살게 되었다. 이러니 우리는 엇더케할가. 別殊는 업다. 오즉 너나할 것 업시 給者제와만 살게 된 오늘날이 社會에서 무엇보다 나부터 먼저 알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줄 알게 하는 工夫를 먼저 할 것 外에는 別道理가 업는가 한다.

爲先 나부터 살기 爲하여 나를 아는 同時에 남을 알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홀로 存在하는(나)가 안이라. 내가 안인(남)과 갓치 살게 된 내가 되었스 즉 나와 남의 間에 關係를 알으야 할 것이다. 이것이 道德學의 根本問題이다. 우리는 이 아래에 나를 살리기 爲한 道德論 즉 動的 個人主義의 道德論을 좀 研究해보려 한다.

二

우리사람은 日常生活하는 中에 凡事에 對하여 조타 낮부다 하는 判斷을 하게 되는 것은 事實이다. 어린 아희부터 老年에까지 一字도 不知하는 無識者부터 「칸트」以上の 學者까지 엇던 일엇던 物體는 조코 엇던 것은 낮부다. 이것은 善하고 저것은 惡하다 하게 되는 것이다. 오즉 問題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標準해 가지고 善惡을 判斷할가하는 標準問題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惡이라 하며 善이라 할가 하는 것이 生覺해볼만한 價値問題다.

古來로 이 善惡標準問題에 對하여 區々한 學說이 만했다. 나는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고자 안이 한다. 여기서 單只 短刀 直入的으로 簡易하나마 善惡에對한 定義를 하자면 이러할 것이다. 엇더한 것이든지 우리 人生生活의 根本目的과 逆流할냐는것 즉 障礙되는 것은 惡이라 할 것이다. 萬若不然하고 우리 生活에(利)주는 모든 것은 善이다. 合宜하다 할 수 맞게는 업다.

그러면 사람의 根本的 生活目的은 무엇일가. 이것을 注意하여 먼저 定하여

야 할 것이다. 卽 善하다. 하는 生活目的의 內容은 엇더한 것일가. 下等動物이나 高等動物이 나를 莫論하고 다가티 二種의 生活目的을 가졌다 한다. 하나는 自我保存 兼 自我表現이요. 다른 하나는 同種保存 兼 同族發展이다. 이 兩種의 目的은 둘이면서도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動物이 進化發展됨에 依하여 이제 말한 生物의 두 目的의 範圍가 漸次로 廣大하여야지면서 서로 接近하여져서 乃終에는 所謂協同扶助의 法으로 假化하여 習慣을 짓게 된다. 이 協同扶助의 假化는 同胞全體의 利益과 享福을 爲하는 目的갓치 되어 지난 것이다. 이러한 利己的 利他的 條件을 連帶一致하는 目的을 가지고 生活해 나아가는 過程에 무엇이든지 障礙되고 害되는 것을 「意識」하는 새에 그것을 가라쳐 낫부다 卽 惡하다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그 生活目的을 成功케하고 符合케하는 그 條件을 意識할적에 이룸하여 조타 善하다 하는 것이다.

이 眞理는 나의 무슨 新發明이 안이라. 過去及現在의 우리사람의 生活現狀을 보아 證據할 수 있는 實事實에서 不過한것이다. 이는 實로 一般事物의 眞價를 判斷할 時에 그 事物의 結果에 依하여 作定한다 하는 在來의 學術的 實驗主義의 思想이 그것이다.

이럼으로 무릇 善이라 함은 엇던 事物이 그 엇던 目的에 適合하는 點을 말하는 것이다. 假令 우리가 善한 少刀라 말함은 物을 切하는 그 刀의 目的에 適合한 者됨을 일너 하는 말이였다. 換言하면 善하다는 刀의 目的이 力에 있다 하는 以上 그 力에 依하여 其 少刀의 善惡的 價値를 判定할 수 있을 것은 分明한 事이다. 여기서 其刀가 잘비히는 結果를 내어 잇스면 그것은 眞이요. 不然이면 僞가 된다는 平凡한 實驗的 思想이다. 여기에 누가 誤解하기를 善惡과 眞僞를 混沌한다고 할는지 몰으나 根本에 잇서서는 兩者가 다 同一하다. 善惡은 道德學에서 使用하는 것이요. 眞僞는 理論學에서 使用하는 術語이다. 兩者의 研究事項은 一般이다.

以上을 準하여 善惡이란 一種相對的 名辭의 뜻인 것을 알겠다. 그러면 善惡이란 것은 아모런 客觀的 存在를 가지지 못한 오즉 主觀的 道德的으로 辨別하는 一般行爲의 相對性을 일너 말하는 名稱에서 불과하다 할 것인가? 이 問疑는 오늘날 所謂知識階級의 大多數는 可하다고 斷案을 하는듯하나 그러나 한번 더 研究해 볼것이라 한다.

나는 그러한 斷案은 莫大한 誤謬를 包容하고 있다 한다. 그 理由를 말하겠다. 우리가 一步를 進하여 善惡問題를 探究하여보면 善은 積極的으로 惡은 消極的으로 同一히 客觀的 存在를 가지고 있다 하게 된다. 勿論善惡이란 名辭는 우리 言語의 形容辭로써 아모런 客觀的 存在를 가지지 못한 것은 事實

이나 내가 지금 말하는 客觀的 善惡은 우리가 形容詞를 붙쳐 說明하는 그 對象의 善惡을 意味한 것이다. 그러면 그 對象의 善惡이란 무엇일까?

三

이제 通例에 依하여 爲先客觀的 害惡을 兩種으로 分하여보자. 하나는 肉體的 害惡이요. 하나는 精神的 或道德的 惡이라 한다. 肉體的 惡은 다시 兩分하여 見한다. 內在的과 外在的 惡이다. 그리고 外在的 惡은 如何한 自然現狀이든지 우리 사람의 願과 慾을 反抗하고 挫折하는 것이면 그것을 惡이라한다. 이를테어면 不毛의 地, 極寒極暑의 天氣, 旱災, 水災, 霹靂落下, 地震 等 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두면 언제든지 우리 사람의 目的과 計劃을挫折시키는 것이다. 內在的 惡은 吾人이 無能力한 모든 肉體的 弱質일 것이다. 例하면 弱한 身體, 疲勞한 頭腦등이라 한다. 이 外的 內的 惡物들을 抗拒하여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精神的 道德問題가 生起한다.

道德的 惡도 兩方으로 現露된다 할 수 있다. 一은 肉體方向이요. 二는 私利方向이다. 前者는 肉體를 爲하는 모든 弱點과 惡習을 包含한것이다. 仔細히 말하면 우리의 生活을 理智와 德性으로 指導치 못하고 細些한 肉慾的 衝動에 放任하는 無節制가 그것이다. 卽 放蕩, 不節制, 懶怠, 卑怯 等은 다 肉慾에 基因한 惡性들이다.

後者 즉 利己라는 方向은 實로 一切의 惡習性的 大根本인것을 忘却할 수 없다. 貪慾, 不正當, 疾視, 高慢放恣, 惡意, 惡感 等은 모다 私利의 結果이다. 이러한 모든 惡毒은 過去나 現在나 一般的으로 人生生活의 內容의 큰 一部를 次置하고 잇는 것은 事實이다. 이는 免할 수 업는 人類的 現狀인가한다. 唯免할 수 업는 現狀으로 되어잇나? 研究해 볼 問題이다.

엇지 했든 以後 몇 萬年間進化한 다음에는 몰나도 以後 얼마까지는 以上의 記한 一般惡은 그대로 存在하리라. 한 다안이 人生이 有限한 生存을 繼續할새까지는 罪惡이 儼存하리라 한다. 오즉 우리가 해야할 것은 엇더케 하여야 이 모든 客觀的 惡毒을 征服하여 利用할 수 잇슬까? 하는 것을 알아서 實行할것뿐이다.

四

唯以上과 갖흔 罪惡이 우리 사람 사는 이 世上에 잇게 되어슬까? 무슨 意味일까? 그것들이 무슨 理由로 우리의 生活을 障礙갈나하는가? 正말 그것들이 우리 生活의 害毒物인가? 나는 암만 생각해보아도 이 아래 結論맞게는 더싼 合理的인 結論이 업서 碇인다. 一般讀者도 한번 더 生覺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리케 結論하였다. 只今 우리의 有限하고 不徹底한 人性으로써는 現

代이 世上—害毒만코 不完全한 이 世上—이 도리혀 只今 사람 性에 適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업다 한다. 말하면 以上에 論示한 罪惡이 存在하는 것이 우리 人生生活上에 必要하다 하지 않을 수 업다 한다. 이런 말을 얼는 드르면 狂人の 言가틀는지 몰으나 그러나 그 眞理를 理解하고 보면 眞正한 事實이 된다. 적어도 그럴 듯하게 될 수 맞게는 업다.

勿論 肉體的이나 道德的 惡의 必要를 내가 主張함은 特殊한 事件즉 意外事에 限하여서까지 모다 能히 證明解釋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이다. 그저 普遍的으로 보아서 以上의 모든 不幸은 도리혀 生의 幸이라고 證明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맞치 一種科學이 엇더한 原理上에서 一般現象을 普遍的으로 說明할 수 잇스되 엇던 特殊의 事變을 說明치 못함과 갓다는 말이다. 이와 갓치 惡의 存在必要도 特殊的인 事件에 對하여서는 證明하기 難하나 普遍的으로는 容易하다는 것뿐이다.

實相 우리는 惡을 憎惡視할야할 時에 善을 連想치 않을 수 업는 것이다. 또한 惡을 撲滅할야할 時에 善을 脅迫함이나 되지 안이할가하는 疑心도 업지 안이다.

德念으로 高尚하다는 忍耐나 勇猛이나 憧憬은 一面으로는 利己的 肉慾은 預想하고잇는 것이다. 肉慾的 煩悶과 苦痛이 업시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經驗해보지 못하엿드면 節制心갓흔것이 저절로 出現하리라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럼으로 惡이란 것이 當初부터 업서 드면 善이란 것도 生起하엿슬는지 一大疑問이다. 同一理致로 利己心의 反對인 公利心갓튼 德性도 其 背景에는 利己的 肉慾人의 貪心을 預想한 것이다. 利己心이 잇는 까닭에 公利心이 發해야 그것과 對抗하게 되는 것이다. 오즉 生活은 이러한 善惡의 鬪爭뿐이요. 그 鬪爭에서만 生活이 向上한다. 實로 公正과 不公正間에 鬪爭하는 時에 만 사람의 所謂德性이 强하야진다.

더쉬운例를드러말하면지난歐洲大戰갓튼것이演出치안엇스면吾人은월손氏의 十四條件의正義人道主義갓튼것을보지못하엿슬것이요軍縮會議갓튼義舉를發見치못하엿슬 것이다.

肉體的 惡을 論하여도 一般이다. 今日의 人類文明은 以上에 論示한 肉體的 惡 즉 自然的 障礙가 잇슴으로 因하야 그것을 征服하야엇은 功績을 文明이라하는 것이다. 各種의 病魔가 無하여 쓰면 醫學의 發達을 보지 못하엿슬 것이다. 寒暑가 업섯드면 家屋衣服凡節을 發明치 못하엿슬 것이다. 耕作치 안코도 自然的으로 百穀을 豊富히 秋收하게 되엿다 하면 農事에 對한 技術이 發達되지 못하엿슬 것이다. 사람은 먹고 살기 爲하야 모든 障礙를 除却하기에 勞力한다. 그 勞力中에서 各種의 學術이 生起한것이다. 以上을 보아서 그

얼마나 惡이 人生發達에 必要的 條件이 되는지 可知치 안이 하겠는가? 오죽 살기 爲하여 싸울 것 뿐이라 한다.

萬若이 世上에 아모런 障礙가 업고 惡도 업다하고 본다하면 그 무슨 意味가 잇슬가 보냐? 正말 그렇타 하면 이 世上은 사람이 살곳은 안일 것이다. 사람은 活動의 動物이여늘 障礙가 업다 하는 말은 活動이 업다 하는 뜻이다. 즉 사람이 업다는 뜻이다. 活動업는 사람은 死人맞게 더 되지 못한다. 生活은 以上에 述한 모든 惡과 爭鬪하는 뜻이다. 文明은 이 爭戰의 結晶이다. 이 戰爭을 잘한 個人이나 民族은 잘 살고 文明했다 한다. 萬若이 戰爭을 回避하고 스스로 自暴自棄하여 失望悲觀하는 者는 비록 文明한 社會에 居한다 하드래도 未開野蠻이라 할 수 맞게 업다. 그는 갈데 업시 廢物일 것이다. 그러 치만은 惡을 善으로싸와 만든 그 사람은 正말 산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일 것이다. 以後부터는 이러한 사람만이 生存할 權利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이는 現下에서는 쟁이처럼 生의 前轍을 되푸리 할 줄만 아는 人生을 越한 純自決者이다.

이래서 惡은 善을 爲하여 또 善을 發達식히기 爲하여 存在하는 것이라고 나는 斷言한다. 惡은 活動의 刺戟이다. 不斷의 活動은 善을 가져오고야 만다. 엇지 햇든 싸우는 것 하나는 늘 勝利인 것이다.

여기에 對하여 엇던 이가 反問하되 「罪惡의 結果는 死」인 것은 歷史上으로 알니 여진 事實인즉 이것을 엇더케 說明하겠는가 할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 말을 分明히 解釋해보면 그 罪하는 것은 惡과 싸와 이기지 못하였스나 自己의 無能과 卑怯때문에 失敗하여 悲觀自殺하는 것 갖흔것 인즉 그야말로 罪의 結果는 死亡인 것이다. 設或盡力하여싸왔지만은 成就치 못하고 亡하는 意外가 잇는 것도 預想할 수 잇겠지만은 이는 意外인것만침 舉論할 餘地가 업다 한다. 以上에도 미리 말해 두어거니와 特殊한 境遇와 事情의 一切을 細々히 說明할 수 업는 일이다. 科學者가 萬有一切을 實地로 實驗한 後에 萬有引力律을 定한것이 안이다. 普遍的 事物에 對한 實地經驗에 依하여 定立된 것 뿐이다. 그와 가티 各사람에 限하여서도 惡의 結果를 意外업시 모다 調査할 수 업는 일이다. 但個人의 不幸을 볼 때에 그것을 힘써싸와 善으로 變遷케하라 할 것 뿐이다. 그리고 不幸이 僥倖되는 數가 만흔 것이라 한다.

五

以上에 論示함과 갖치 萬一 우리사람의 生活에는 惡이란 것이 必要하다하면 우리의 生活이 持續되는 그때까지는 惡도 同存케 되리 하고 結論하게 된다. 그리고 萬一 이러케 惡이 人生生活에서 썩나가지 안는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만 落望하여 涼情하여지고 無爲해지 지나안이 한가하는 念慮를 이르

키게된다. 사람마다 恨嘆하되 「惡을 征服하드시 그 比列로 惡이 續出할 것이요. 이 苦痛煩悶世上은 늘이 貌樣일것이니 그 짜진 것 努力奮鬪는 해서 무엇하느냐? 개가 自己똥덩이 물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과 同一할 것을!」이라고 自暴自棄나안이할가?

그러나 사람이 先天的으로 病身이 안이면 그러케 自暴自棄는 안이 하는줄 안다. 사람이 살냐고난 그대로 奮鬪해 살냐고할 地境이면 不可不落望은 안이 하리라 한다. 落望이나 自暴自棄는 사람의 本意가 안이다. 一種意外的 不幸에서 不過하다. 도리혀 勇氣를 내이고 奮鬪하는 것이 사람의 原性質이다. 그는 사라 보겠다고 不幸이 혹있다 하드래도 別手段을 다피여서 그것을 悲觀치 안이하려 한다. 이럼으로 내가 失手하야 眼鏡을 깨치엿스면는 상처 안은 것을 大幸으로 看做하며 돈 一元을 失하엿스면 二元일치안은 것을 多幸으로 알나하는 것이다. 엇지 헛든 사는 것이 第一 策인 貌樣이다.

農夫가 明年春期에 耕作의 苦勞가 잇다하야 今春의 耕作을 度外視하지안코 도리혀 快念을 가지는 것이다. 飢餓人이 다시 飢餓가 잇슬가하야 只今에 食하기를 努力치 안이하지는 안이한다. 그는 다시 배급홀줄을 썬々히 알면서도 오날을 먹기 위하야 勞働하기를 게을지 안는다. 이런 故로 惡이 잇다고 落望할바 업스며 도리혀 그것과 싸우는데서 生의 眞味를 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根本的뜻이다.

日前에 飢餓가 잇스면 우리는 이것을 싸와 이기어야 할 것이며 이걸 生活의 첫 順序이겟다. 只今에 먹을 것 업다고 無能하게 누어서 한탄만 말고 規則대로 버리먹을 境遇가 못되면 남의 ××××라도 해서 나부터 먹고튼々하야 할 것이다. 特히 우리 朝鮮人은 이러한 眞理를 速히 覺悟하난 때에야 現下우리의 衰退에서 버서날 것이다. 어려운 일을 當할 때에 悲觀하고 落望하는 것은 生存의 罪人이요. 사람이 될 수 업는 것이다. 사람이란 根本뜻은 善惡의 創造者이기 때문이다.